

핑크헤어스타일의 근원 고찰 -닭 벋 머리형을 중심으로-

이연희 · 김주애*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경상대학교 의류학 전공

Studies on the Origin of Punk Hair Style - With Specific Emphases on Cockcomb Hair Style -

Yon-Hee Lee · Ju-Ae Kim*

Dept. of Beauty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4. 6. 15.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examine the Punk hair styles which, with their various, rather vague names, help to describe the twentieth century subordinate cultures or subculture and also their place today as one of the mainstream male hair trends. The scope of this research will stretch to include also: North-east and around that areas native Americans' hair styles which, are thought to have strong links with the Punk hair trend. The focus of this research will remain with the so-called Mohican or Mohawk hair style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unk styles), which have originated mainly from native American warriors residing in North-east and South-east region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larified a few questions in doubt concerning the origin of cockcomb hairstyle. Firstly, the cockcomb hairstyle known to represent punk hairstyle was influenced the American Indian's Roach style. Secondly, since Roach style is referred as Mohawk tribe's hairstyle in some references, the view of seeing cockcomb hairstyle as a Mohawk style is considered more persuasive. Thirdly, although Roach style was a usual hairstyle through North-east and South-east region of the United States, the people in South-east region did Roach hair style because of the North-east's influences. Lastly, alike the Punks had several kinds of cockcomb hairstyle, American Indians' Roach style also differed in shape concerning of their regions and their kindred.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most common term to refer punk hairstyle became Mohican is considered as that the film 'Last Mohican' has influenced on it. That film can appeal their history and play a good role of mediator to let the public know better about themselves, 'Mohican' naturally became the name of the specific hair style.

Key words: Punk hair style, Mohican, Mohawk, roach, American indian warrior; 핑크헤어스타일, 모히칸, 모왁, 로치, 아메리칸 인디언 전사

I. 서 론

사람의 외모에서 헤어스타일은 의복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Bryer(2000)는 인간 행동의 두 가지 특별한 점은 옷을 입는 것과 머리모양을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헤어스타일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암시 한다고 함으로써 외모형성에서 헤어스타일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20세기 패션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위문화패션 중, 핑크스타일은 가장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

로 간주되고 있다. 형과 색을 특징으로 하는 핑크헤어스타일에서 특히 닭 뿔 머리모양은 오늘날 스포츠스타나 연예인들은 물론,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들의 외모장식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남성 헤어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는 핑크헤어스타일 중, '모히칸(Mohican)' 스타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닭 뿔 머리모양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핑크헤어스타일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닭 뿔 머리모양에 대한 명칭이 문헌자료에 따라서 모히칸, 또는 모왁(Mohawk)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되고 있으며(한국 미용신문, 2003; 홍명숙, 1988; Arnold, 2001; Bryer, 2000; Corson, 2001; Jones, 1990; Karl, 1997; Parerek 1994; Polhemus, 1996; <http://africa.com>), 명칭 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적(史的) 규명 또한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연물의 형상이나 재료에서 그 근원을 두었던 초기 인간의 신체장식이 오늘날은 각 종족이나 집단들의 다양한 장식행위에서 차용되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현대 헤어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핑크헤어스타일의 근원 파악은 의미 있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대학에서의 토탈패션이나 미용분야 학과의 수적 증가현상 비례하는 다양한 연구 수행과 이를 통한 학문적 기반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핑크스타일과 핑크헤어스타일, 그리고 핑크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아메리칸 북동부와 한 인근지역 인디언들의 헤어스타일 특성에 관한 것으로 한다. 연구범위의 설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두상의 정수리 부위를 강조하는 형태, 즉 닭 뿔 머리형이 1970년대 핑크헤어스타일의 전형(Brayer, 2000)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선행연구와 문헌들에서 이 스타일에 아메리칸 인디언의 특정종족 명칭을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Through Indian Eyes(1995)에서 1776년 영국 국왕을 방문하였던 모왁족 최고 지도자의 길고 뾰족한 새의 뿔 모양이 런던의 거리 갱(gangs)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 또한 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정스타일에 대한 근원 규명으로 관련 분야의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남성 헤어스타일을 외모장식의 한 요소로서 뿐 아니라 의류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II. 핑크헤어스타일

1. 핑크스타일의 일반적 경향

핑크스타일은 20세기 패션사에서 모즈, 히피와 더불어 대표적인 하위문화로 기록되고 있으며, 특히 공격적이고 공격적인 외모장식으로 이들 중 가장 강한 이미지를 가진다. Hebdige(1979)는 핑크스타일을 아방가르드적이면서 '몰 교양성', '불경스러움의 극단'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핑크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언급하였다.

핑크족은 평화와 사랑을 주장하던 '60년대 히피의 낭만주의에 대한 부정과 무정부주의를 슬로건으로 기존체제나 질서에 맞서고자 했던 공격적인 집단으로서, 극단적인 외모장식으로 '70년대 하위문화 패션의 특성을 가장 잘 부각시키기도 하였다(신현준, 2000; <http://search.cyber.com>). 이러한 맥락에서 나치 상징물이나 인공기 등과 같은 파시스트적인 핑커들의 외모장식품들은 기존체제에 대한 권태와 구세대에 대한 거부를 표방하는 그들의 이념과 사상 전달을 위한 표현수단으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핑커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상징물들은 주류문화 이면(裏面)의 것들로서 불쾌감과 무례함,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경멸스러움을 나타내는 풍자적 표현으로서 뿐 아니라, 핑크 이후의 몇 십년간을 움직이는 경이로운 타도나 전복을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 창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Taylor, 2002).

한편, 핑크헤어스타일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닭 뿔 머리형은 아메리칸 인디언 전사들의 로치형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핑크헤어스타일을 모히칸 또는 모왁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여러 문헌자료와 Through Indian Eyes(1995)에서 18세기 모왁족 최고 지도자의 머리모양이 당시 런던 거리 갱들의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18세기 모왁 헤어스타일에 관한 언급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신체장식 문화가 영국 특정집단의 그것에 미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더한다.

핑크스타일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핑크스타일의 여러 가지 외모장식 요소 중, 가장 강한 시각 효과를 전달하고 있는 핑크헤어스타일의 각 형태와 색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2. 핑크헤어스타일의 형태별 특성

핑크헤어스타일은 여러 가지 형태적 특성을 가지는데, 크게 닭 뺏형, 스파이크(spike)형, 산만형, 그리고 변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분류기준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핑크스타일 사진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의 형태적 특징에 따른 것이다. 또한 닭 뺏형과 스파이크형은 이미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명칭(Bryer, 2000; Corson, 2001; Gröning, 1997)을 그대로 적용시키며, 산만형과 변형은 이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 없어 연구자가 명명하였다.

1) 닭 뺏 머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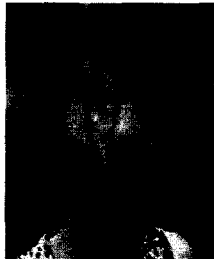
닭 뺏형은 형태에 따른 강한 이미지도 있지만, 현란한 색의 연출에서 그 두드러짐을 더한다. Corson (2001)은 닭 뺏형을 뾰족한 형으로 지칭하면서, 이러한 형을 연출하기 위한 초기 재료는 설탕, 밀가루, 비누, 그리고 물 등이 사용되어졌다고 한다. <사진 1>과 <사진 2>는 닭 뺏형의 앞모습과 옆모습으로서, 이마에서 뒷목까지를 연결하는 가운데 부분의 머리만 남기고 좌우 머리를 완전히 없앴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비하여 <사진 3>은 옆 두피부위가 훨씬 좁게 드러나며, 머리 모양 또한 <사진 1>과 <사진 2>에 비하

여 풍성한 형태이다. <사진 4>는 가운데 한 줄의 머리 옆에 간격을 두고 짧은 한 줄을 다시 만들어, 이들을 각각 다르게 염색시키고, 원래의 머리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도록 연출하였다. <사진 5>는 머리의 위아래를 각각 다르게 염색하여 투톤(two tone)으로 만들었다. 한편 <사진 6>은 양 옆머리를 짧게 남기고 가운데를 닭 뺏형으로 연출하고 뒤로 가면서 머리 길이를 점점 짧게 하여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세기 핑크족들은 머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닭 뺏 모양을 만들었고, 연출 방법과 색상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스파이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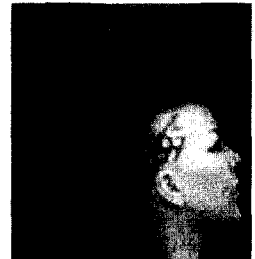
핑크헤어스타일에서 닭 뺏형 만큼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스파이크형은 못처럼 뾰족한 형태적 특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부쳐진 것으로 여겨진다. 전형적인 닭 뺏형이 양옆 두피를 그대로 드러내었던 것에 비하여, 스파이크형은 두피를 드러내지 않고 머리를 부분적으로 나눈 후, 무스나 젤 등으로 일정한 형을 유지시켰는데 그 특징이 있다. <사진 7>은 가장 일반적인 스파이크형으로서, 이 형태는 짧게 자른 머리를 부



<사진 1> 닭 뺏형의 앞모습
1980(Style Surfing, p.54)



<사진 2> 닭 뺏형 옆모습



<사진 3> 풍성한 스타일의 닭 뺏형
1985(The History of Hair, p.135)



<사진 4> 짧은 닭 뺏형
1980년대 초(Street Style, p.8)



<사진 5> 색을 변화시킨 닭 뺏형
1980(Street Style, p.15)



<사진 6> 색과 길이를 변화시킨형

스, 젤, 스프레이 등의 여러 가지 재료 사용을 통하여 쉽게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사진 8>은 일정한 선을 따라 머리를 완전히 밀어냄으로써 두피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사진 9>는 <사진 8>과 비슷한 방식으로 머리를 밀었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사진 7>과 유사하며, 다만 머리길이를 다르게 변화시킴으로써 스파이크의 길이도 다르게 나타난다.

스파이크형 또한 닭 벋형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두피를 비교적 고르게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즉, 머리를 일정한 영역 나누어 스파이크 모양으로 연출함으로써 닭 벋형이 부분적으로 두피 전체를 완전히 드러내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산만형

산만형은 평범한 머리를 헤어연출 제품으로 부풀리고 위로 뻗치게 만든 형태이다. 펑크스타일에 관한 문헌과 선행연구에서 닭 벋형이나 스파이크형에 대한 언급은 많았지만, 산만한 머리형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펑크족들의 사진자료에서는 머리를 의도적으로 지지분하게 만들어 산만한 형으로 만든 형태가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닭 벋형,

스파이크형 이외에 산만한 머리형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사진 10>은 1970년대 결성된 펑크 락(rock) 그룹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의 보컬리스트인 조지 로튼(Johnny Rotten)의 모습이다. 펑크의 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비비안 웨스트 우드와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그룹은 음악 뿐 아니라 스타일에서도 펑크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사진 11>은 두 가지 톤의 머리색과 산만하게 부풀린 머리형으로 더욱 산만하고 지지분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사진 12>는 위로 뻗친 머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만든 형태로서, 오늘날 연예인이나 개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다.

4)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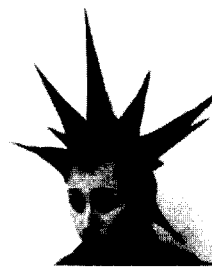
변형은 닭 벋형, 스파이크형 등과 유사하게 여겨지지만, 이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스타일들이다. <사진 13>은 닭 벋형처럼 양 옆의 머리를 밀었지만, 전형적인 닭 벋형에 비하여 가운데 부분의 머리를 많이 남겼으며, 연출방법에서도 폭탄이 상승하는 듯한 형태를 유지시키고 있다. 또한 <사진 14>와 같이 가운데 부분은 스파이크형으로 상승시키고 옆 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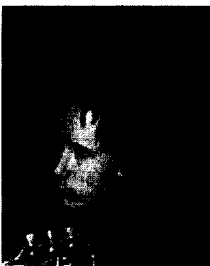
<사진 7> 스파이크형, 1984 (Fashion Today, p.373)



<사진 8> 부분적으로 두피를 드러낸 형 연도 미상 (Decorated Skin, p.234)



<사진 9> 다양한 길이의 스파이크형 1983. (Smile I-D, p.74)



<사진 10> 산만한 머리형의 조니 로튼 1970년대 (20th century fashion,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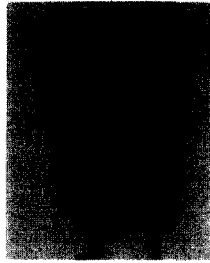
<사진 11> 지지분한 산만형 1980년대(Street Style, p.92)



<사진 12>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산만형 1984년 (Men's Fashion, p.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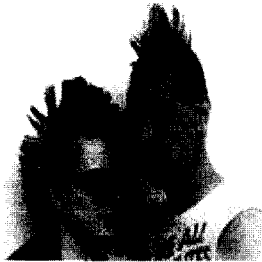
<사진 13> 폭탄형으로 변화시킨 형
1987 (Street Style, p.91)



<사진 14> 윗부분만 상승시킨형
1987 (Street Style, p.89)



<사진 15> 양 옆을 강조시킨 형
1987 (Street Style, p.93)



<사진 16> 회색과 핑크색으로 염색한
핑커커플 1987 (Street Style, p.91)



<사진 17> 초록과 빨강의 대비
년도미상(Decorated Skin, p.235)



<사진 18> 빨강, 노랑, 검정의 대비
년도미상 (Decorated Skin, p.235)

머리는 두피에 최대한 밀착시켜, 이를 메이크업과 연결시켜 기이한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사진 15>처럼 아주 짧은 머리의 가운데 부분을 납작하게 만들고 옆 부분은 뾰족하게 하여 다소 귀여운 이미지를 보이는 스타일 등이 있다.

형태별 펑크헤어스타일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닭뿔형은 머리형태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스타일임에 비하여, 스파이크형은 비교적 고른 길이를 가진 머리를 무스나 젤과 같은 재료로 뾰족하게 연출하는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산만형은 본래의 평범한 헤어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머리끝을 위로 올려 전체적으로 지지분한 이미지가 연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변형은 이들 각 스타일들에 자유로운 변화를 준 결과 나타난 스타일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펑크헤어스타일들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은 헤어연출 제품을 사용하여 머리카락 끝을 위로 향하게 하는 상승형을 유지하였다는데 있다.

3. 펑크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색의 특징

펑크족의 외모장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색은 검정이지만, 헤어스타일에서는 검정 이외에도 빨

강, 노랑, 초록 등과 같은 원색들이 많이 이용되었다. 여러 가지 하위문화 패션 중, 펑크스타일이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원인에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장식이나 메시지 사용 이외에도 기이한 형태와 원색적인 화려함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염색의 영향 또한 크다. <사진 16>은 회색으로 염색한 여성과 회색 톤의 핑크로 머리색을 변화시킨 남성의 모습이며, <사진 17>은 가운데 부분을 초록색으로, 뒷목덜미 아래로 치지는 머리를 마젠타, 그리고 옆의 이마 경계선 부위를 검정색으로 연출한 것이다. 또한 <사진 18>은 검정과 빨강, 그리고 노랑색을 대비시켜 강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진 19>는 닭뿔형 머리를 원색의 노랑으로 염색한 것이며, <사진 20>은 탈색으로 아이보리 색으로 변화시킨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진 21>은 이마의 볼 색과 같은 주황색으로 염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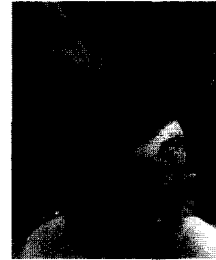
이외에도 펑크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머리색들은 형태적 특성을 살펴본 <사진 1>부터 <사진 15>를 통하여서도 잘 알 파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색과 색들 간의 조화는 형태적 특징과 융합되어 펑크스타일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시키고 있다.



<사진 19> 노랑색의 스파이크형
(20th century fashion, p.3)



<사진 20> 연하게 탈색시킨 스타일
1982 (Fashion Today, p.372)



<사진 21> 주황색의 여성 핑커
1970년대 (A Fashionable History of
Make up & Body Decoration, p.13)

III. 아메리칸 인디언 헤어스타일

핑크헤어스타일과 아메리칸 인디언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은 II장의 핑크스타일의 일반적 경향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수많은 종족들 중, 닭 벧 머리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모히칸족과 모와족, 그리고 이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던 북동부지역 다른 종족의 남자전사 헤어스타일에 관하여 증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들 지역 이외에도 북동부 인근지역 및 원거리 지역 아메리칸 인디언의 남자전사 헤어스타일에 관하여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북동부 이외지역에 관한 고찰은 닭 벧 머리형이 모히칸이나 모와 또는 북동부지역 인디언들의 고유한 스타일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 모히칸 및 모와 헤어스타일

닭 벧 머리형에 대한 명칭은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몇몇 문헌(홍병숙, 1988; Arnold, 2001; Bryer, 2000; Corson, 2001; Polhemus, 1996)과 21세기의 남성헤어 트렌드 관련 신문기사(한국미용신문, 2003),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http://iafrica.com>)에서는 닭 벧형을 모히칸 스타일로 명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Jones(1990)는 모와 또는 모히칸의 머리에서 핑크헤어스타일이 생겼다고 함으로써 닭 벧 머리형이 모히칸족의 전유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Gröning(1997)과 Paterek(1994),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lacrosslibrary.org>)의 담당자도 닭 벧 머리형이 모와족 헤어스타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에 대한 불명확함은 아메리칸 인디언 역

사에 나타난 이들 두 종족간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두 종족은 북동부 지역의 허드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근거지를 이루고 살면서 오랜 기간동안 적대관계와 유대관계를 교차시켜 오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모와족이 속한 이라퀴와(Iroquois) 동맹에게 모히칸족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모히칸족은 그들의 근거지를 잃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dickshovel.com>; <http://mohican.com>). 1992년 개봉한 영화 'Last of the Mohican'은 James Fenimore Cooper가 1826년 발표한 원작소설에 근거하여 Michael Mann이 제작한(<http://users.efni.com>) 것으로, 16세기 유럽인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아메리칸 인디언 종족들 간의 오랜 전쟁,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식민지배자였던 유럽여성과 원주민과의 사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세기에 발표된 소설을 원작으로 20세기에 제작된 이 영화는 멸망한 종족이었던 모히칸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만약 그 때의 전쟁에서 이라퀴와 동맹이 패배했다면, 소설의 제목은 'Last of the Iroquois'가 되었을 것(<http://dickshovel.com>)이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닭 벧 머리형에 대한 명칭이 모히칸으로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할 때, 모히칸족과 모와족은 비록 오랜 적대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지만, 동일한 지역적 환경과 잦은 접촉으로 인하여 생활문화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모히칸과 모와족의 당시 머리모양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극히 적었는데, 이는 인디언들의 문화적 발달이 유럽에 비하여 늦었으므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체계화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사진기

발명 이전의 시각적 자료의 대부분이 그림을 통하여 제작되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유럽사회에서는 화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들에 의하여 당시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음에 반하여, 아메리칸 대륙 원주민들은 기록문화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확한 기록 자료를 남길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관련 자료들은 17세기 이후 유럽화가들이 신대륙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Gröning, 1997)이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모히칸족은 19세기에 멸망한 종족이었으며, 모와족 또한 이라퀴와 동맹의 한 종족이었기 때문에 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림 자료는 더욱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자료는 <사진 22>와 <사진 23>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진 22>는 1750년대 모와족의 남자전사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정수리 부분의 머리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두피를 모두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화 '마지막 모히칸족'의 등장인물 뒷모습을 나타낸 <사진 23>은 20세기 핑크와 비슷한 특징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닭 벯 머리형이 허드슨강 유역에 거주하였던 모히칸과 모와족의 전유물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과 같은 지역권에 거주하였던 북동



<사진 22> 1750년대의 모와전사



<사진 23> '영화 마지막 모히칸'속의 닭 벯형 머리
(The American Indian, p.232)

부 지역의 다른 종족 남자 전사들의 머리모양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북동부 지역 아메리칸 인디언의 헤어스타일

1) 북동부 아메리칸 인디언의 헤어스타일과 모와 헤어스타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의복과 외모장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Paterek(1994)은 북동부지역 남자 헤어스타일의 특징은 로치(roach)라는 남자전사 머리이며, 이것은 종종 '모와'이라고 불려졌다고 함으로써, 닭 벯 머리형의 모호했던 명칭과 근원을 규명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Paterek의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의 닭 벯 머리형이 모히칸이나 모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메리칸 북동부 지역 남자전사들의 일반적인 머리형태였던 로치형에서 기인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로치란 잉어과의 물고기를 의미하며, 그 형태가 물고기가 구부린 자세와 유사하다. <사진 24>는 1910년에 제작된 로치인데, 이것은 보통 사슴 털이나 터키(turkey) 털 또는 뾰뾰한 호저(porcupine: 豪猪, 일명 바늘두더지) 털로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이었고, 주로 빨강색으로 염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저 털은 북동부지역에서 풍부한 소재였다고 하며, 이것은 남동부지역과의 교역물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izemore, 1997). 이 지역 인디언 남자전사들은 머리를 완전히 밀거나, 정수리 부분에서 길게 한 가닥으로 남겼는데, 로치 사용 시 전사의 경우에는 두피에 로치를 그대로 고정시켰고, 후자의 경우 정수리부터 길게 남겨놓은 뒷머리와 로치가 연결되도록 하였다(Paterek, 1994; Wolf, 1990). 일정한 형태를 갖춘 로치가 두피에 부착되어졌을 때, 전체 머리모양은 오늘날의 닭 벯형과 유사하다. <사진 24>의 위아래에 달려있는 가죽 끈은 두피에 로치를 고정시



<사진 24> 로치. 1910
(Encyclopedia of American Indian Costume, p.73)



<사진 25> 캐롤라이나 알곤킨 전사 (1585년. The american Indian, p.240)

<사진 26> 세네카족 원로의 모습 (1764년. Through Indian Eyes, pp.142-143.)

<사진 27> 세네카 남자들의 모습 (1764년. Through Indian Eyes, pp.142-143.)

키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Paterek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자료에 근거할 때, 아메리칸 북동부 지역 남자전사들의 가장 일반적 머리형태였던 로치는 모와족의 그것으로 간주되고, 이것이 20세기 핑크족의 닭 벧 머리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닭 벧형이 모와스타일이라는 일부 견해가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진다.

2) 북동부 지역 기타 종족들의 헤어스타일

여러 문헌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북동부 지역에 근거지를 두었던 인디언 종족들의 수는 약 40-50여개였던 것으로 파악 된다(Dubin, 2002; Paterek, 1994; Taylor, 2002; Through Indian Eyes, 1995).

북미 인디언들의 장신구에 관한 저서를 출판한 Dubin(2002)에 따르면, 이 지역의 종족들은 지역에 따라 Coastal Zone, Saint Lawrence Lowland, Great Lakes-Riverine의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Coastal Zone 그룹에는 Micmac, Eastern Abenaki 종족 등이 있고, Saint Lawrence Lowland 지역에는 Saint Lawrence Iroquois, Mohwak, Mohican, Seneca, North Carolina Algonquians 등이 거주했다고 한다. 또한 Great Lakes-Riverine는 Chippewa, Ottawa, Saux & Fox, Miami 등의 거주지였다(Taylor, 2002).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는 북동부 지역 남자전사 헤어스타일의 공통점은 로치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형태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25>는 모와, 모히칸과 같은 지역에 살았던 북 캐롤라이나 알곤킨족 남자전사로서 뒷머리가 없는 짧은 로치형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스타일은 전체 머리를 밀어내고 두피위에 로치를 엮은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26>은 세네카족들의 회의 광경을 묘사한 그림 속에서 종족의 원로로 여겨지는 남자로서, 뒷머리를



<사진 28> 폭스족 전사. 1833

<사진 29> 폭스족 전사. 1868

(The american Indian, p.251)

길게 내리고 있다. <사진 27>도 <사진 26>과 같이 세네카족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오른쪽의 남자는 긴 뒷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고 있다. <사진 25>와 <사진 26>, <사진 27>에서 보이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통하여, 이들의 로치형 머리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내거나 정수리 부분에서 한 가닥 남긴 머리와 연결되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종족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머리형태 또한 차이가 있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사진 28>과 <사진 29>는 Great Lakes-Riverine에 거주하였던 폭스족 남자 전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 28>은 <사진 25>와 같이 맨 머리에 붉은 색의 로치를 엮고, 두피와 얼굴에도 붉은 색으로 칠한 모습이다. <사진 29>는 폭스족 전사의 앞모습을 담은 것인데, 흑백 사진 자료이기 때문에 두피를 완전히 드러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하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사진 2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하여 이들 북동부지역 남자전사들의 헤어스타일은 종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로치형 머리를 기본으로 하며, 이

는 오늘날 모히칸 헤어스타일이라고 불리는 닭 벗 머리형과 유사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북동부 인근지역의 스타일

(1) 남동부 지역 남자전사들의 헤어스타일

로치형이 북동부 지역의 고유한 머리형 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동부 인근지역 남자전사들의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의의 있을 것을 생각되므로 이들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남동부지역 남자들 또한 로치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머리를 자르는 방법이 다양하며, 특히 출전 시에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화시켰다(Paterek, 1994)고 하는데, 이는 이 지역의 체로키(Cherokee)족 남자전사 머리형태와 장식에 관한 그림 자료를 통하여 보다 더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체로키족을 비롯한 이 지역의 남자전사들은 로치형 또는 로치형과 비슷한 머리형태를 취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로치형과 비슷한 머리형태란 숫 사슴 꼬리(deer tail)로 장식을 만들어 두피에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로치와 이것과의 차이점은 재료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로치는 호저 털로 만들었던 것에 비하여, 숫 사슴 꼬리 장식은 숫 사슴의 꼬리 털을 붉게 물들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의 형태상 차이점은 <사진 30>과 <사진 31>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사진 30>은 빨강색 털 장식을 검정색 털로 만든 베이스 위에 고정시키고, 이 베이스의 안쪽 면을 두피에 얹어 장식하였으며, 로치는 두피에 남겨진 머리와 연결되도록 쓰고 있다. 또한 길이에 있어서도 <사진 30>은 짧은 반면 높이가 더 높고, <사진 31>은 장식의 전체적 길이가 <사진 30>에 비하여 더 길지만 높이는 약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동부 종족들은 <사진 30>의 장식을 더 많이 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 32>는 아메리칸 남동부 지역의 남자전사로서 뒷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두피는



<사진 30> 숫 사슴꼬리털 머리 장식의 체로키족 (How To Make Cherokee Clothing, p.206)



<사진 31> 로치로 장식한 체로키족 (How To Make Cherokee Clothing, p.210)



<사진 32> 남동부지역 인디언 (1541년 Through Indian Eyes, p.49)

붉게 칠한 모습이다. 한편 <사진 33>, <사진 34>, <사진 35>는 Great Lakes와 Ohio Vally 지역의 Ottawa 족들이 프랑스인과 교역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에서 헤어스타일을 확대시킨 것들이다.

<사진 33>와 <사진 34>는 이들의 지도자로 보이는 남자들이 뒷머리를 길게 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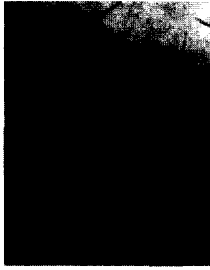
<사진 33> 긴머리의 오타와족 (1690년 Through Indian Eyes, p.162)



<사진 34> 뒷머리를 장식한 모습 (1690년 Through Indian Eyes, p.162)



<사진 35> 뒷머리가 짧은 모습 (1690년 Through Indian Eyes, p.163)



<사진 36> 머리길이가 다른 Ohio Vally지역 전사들
(1690년 Through Indian Eyes, p.170)

<사진 34>는 이마 선에서 머리피를 두르고 뒷부분을 장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진 35>에서는 뒷머리가 없는 로치형 머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종족이라 할지라도 머리모양에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진 36>은 Ohio Vally 지역의 인디언들과 프랑스군대가 동맹하여 영국군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옷을 입고 있는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는 뒷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으나, 앞의 두 남자는 뒷머리 없는 로치형을 하고 있다.

남동부 지역의 남자전사들은 주로 숫 사슴 꼬리털 장식과 로치형을 하고 있었지만, 숫 사슴 꼬리 털 장식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로치의 주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호저 털이 북동부 지역에서 풍부하게 구할 수 있으며, 호저 털이 이들 두 지역의 교역물이었다는 서술을 통하여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동부 지역 전사들 또한 로치와 비슷한 머리형을 취하였지만 그 재료와 형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기타 인근 지역 남자전사들의 헤어스타일

기타 인근지역은 평원지역과 동서부 지역의 자료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평원지역의 일반적인 머리형태는 짧게 자른 앞머리에 진흙을 발라 머리를 위로 세워 이마를 완전히 드러내는 올 백(all back)스타일이었으나<사진 37>, 로치형도 취하였다(Paterrek, 1994)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로치형 머리가 전사들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진 37>은 로치형과는 전혀 다른 머리형을 하고 있는 평원지역 크로(crow)족 남자전사의 모습이다. 크로족은 그들의 긴 머리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음에 반하여 같은 지역의 오세이지(Osage)족은 로치형을 그들의 가장 일반적인 머리형으로 하였다(Paterrik, 1994)고 한다. <사진 38>는 프랑스의 화가 Charles de Saint Memin이 처음으로 그린 평원지역 인디언 모습으로서, 북동부나 남동부의 남자전사들과 같은 로치 스타일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진 39>은 칸사스(Kansas)족 전사의 모습인데, 정수리 부분을 높게 만들어 지금까지 살펴본 로치와는 다소 차이를 가진다. <사진 40>은 평원지역의 오토(Oto) 전사들이 모습인데, 두 명의 남자들은 각각 다른 머리모양을 하고 있다. 즉, 왼쪽의 남자는 두피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것으로 여겨지며, 오른쪽의 남자는 중간부분의 머리를 비교적 많이 남기고 양쪽 두피를 드러냄으로써, 이들 역시 같은 종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머리모양을 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사진 41>은 동서부지역 나바조(Navajo)족 정찰병의 모습으로, 사진속의 인물이 인디언들의 보편적인 머리모양인 긴 스타일을 하고 있어 종족에 따라 다른 형태의 머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남동부 지역의 남자전사들은 북동부지역과 같거나 비슷한 로치형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평원이나 동서부 지역에서는 로치형 이외에도 다양한 머리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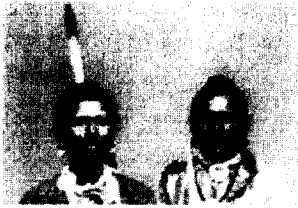
<사진 37>양쪽으로 길게내린 Crow족
(년도 미상. The american Indian, p.266)



<사진 38>화려한 장식의 Osage 전사
(1804년 Decorated Skin, p.43)



<사진 39> Kansas 전사
(1832년 The American Indian, p.281)



<사진 40> 평원지역의 Oto 전사들
(1880년 Native American Potrait, p.79)



<사진 41> 동서부지역의 나바조족 정찰병
(1800년대 중반 Native American Potrait, p.44)

그러므로 오늘날 펑크헤어스타일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닭 벻형 머리는 북동부와 남동부 지역 아메리칸 인디언 남자전사들의 로치형 또는 숫 사슴 머리장식과 유사한 형태이며,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머리형태들은 북동부는 물론 남동부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도 일부 취하였던 스타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닭 벻 머리와 가장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는 로치형은 북동부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북동부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헤어스타일이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남동부 지역이 북동부와 유사한 머리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 두 지역이 유럽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하였고, 각 종족들 간의 교류 또는 대치 상황으로 잦은 접촉을 이루는 가운데 생활문화적인 요소에도 서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아메리칸 인디언 헤어스타일과 펑크헤어 스타일의 차이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펑크헤어스타일의 전형으로 알려지고 있는 닭 벻형 머리가 모히칸이나 모와과 같은 특정 종족이나 이들이 속하였던 북동부 지역의 고

유한 헤어스타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오늘날의 닭 벻형 머리는 아메리칸 북동부와 남동부 지역 남자전사들의 헤어스타일이었던 로치형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로치형과 펑크스타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로치형을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정수리부분의 머리만 길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의 머리는 밀어버림으로써 두피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에 반하여 펑크족들은 앞이마에서 뒷부분까지의 머리는 남기고 좌우부분의 두피만을 드러내었다. 둘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정수리부분에서 머리를 길게 길러 뒤로 내렸지만, 20세기 펑크들의 보편적인 닭 벻형은 뒷머리를 짧게 만드는 형태를 취하였다. 셋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로치형 머리를 만들기 위하여 뺏뺏한 짐승 털을 사용하였음에 반하여 펑크족들은 머리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로 상승형 머리를 연출하였는데, '80년대 무스나 켈이 나오기 전까지 초기 펑크족들은 머리 형태 유지를 위하여 설탕, 비누, 밀가루 등을 물에 섞어 사용하였다. 넷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때로는 로치와 함께 두피도 붉게 칠하거나 붉은색의 장식을 사용하였음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펑크족들은 두피 장식 보다는 닭 벻형으로 만든 머리 자체를 다양하고 화려하게 염색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20세기 하위문화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현대 남성헤어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는 펑크헤어스타일의 불분명한 명칭에 대한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비록 우리가 사용상의 편리함을 위하여 특정 명칭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할지라도,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적인 근거자료들에 의한 정확한 사실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그동안 펑크헤어스타일의 대명사로 알려져 온 닭 벻 머리형은 아메리칸 인디언 남자전사들의 로치형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부 문헌자료에서 로치는 모와족 헤어스타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닭 벻형이 모와스타일이라는 견해가 보다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로치는 아메리칸 북동부와 남동부의 일반

적 머리형태였지만, 남동부는 북동부의 영향을 받아 로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핑커들의 닭 뺨 머리형이 다양한 스타일을 가졌던 것과 같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로치 스타일 역시 지역과 종족에 따라 형태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오늘날 핑크헤어스타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모히칸으로 된 것은 영화 마지막 모히칸의 영향 또한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아메리칸 인디언의 수많은 종족 중 모히칸족은 그들의 역사를 어필할 수 있는 문헌 자료를 19세기에 발표하였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작된 영화는 현대인들에게 모히칸족을 인식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한 결과, 헤어스타일에서도 모히칸이라는 명칭이 가장 자연스럽게 부쳐질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과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나 문헌이 거의 없었고, 연구를 위한 풍부한 시각적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스타일과 18세기 이후 영국의 거리 문화 스타일, 20세기 핑크스타일, 그리고 21세기 남성 헤어 트렌드에 관한 종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동부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근거지를 두었던 아메리칸 인디언 각 종족들의 헤어스타일과 현대 헤어 트렌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하여 연구 성과가 저조하였던 남성 외모장식이나 헤어스타일 등이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아가 패션의 한 장르로서의 미용의 학문적 진전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남성고객 '모히칸' 스타일로 잡아라. (2003, 6. 1). *한국미용신문*, p.5.
 신현준. (2000). *얼트문화와 록 음악*. 서울: 한나래.

아메리카 인디언. 자료검색일 2003, 8. 14. 자료출처 <http://search.encyber.com>.
 홍명숙. (1988). 1980년대 대중문화와 유행스타일과의 관계 연구. *가정문화논총*, 2, 91-105.
 Arnold, R.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N. J.: Rutgers Univ.
 Bryer, R. (2000). *The History of hair*. London: Philip Wilson Pub.
 Corson, R. (2001). *Fashion in hair (9th ed.)*. PA: Peter Owen Ltd.
 Dubin, L. S. (2002). *North american indian jewelry and adornment*. N. Y.: Harry N. Abrams, Inc.
 Gröning, K. I. (1997). *Decorated skin*. London: Thames & Hudson.
 Hebdige, D. (1979). *Subcul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p.19.
 Ian, Frazier. (2000). *On the reds*. N.Y.: Picador.
 Jones, D. (1990). *Coupes et looks; 50ans d'Histoire de cheveux passe au peigne fin*. Paris: Robert Laffont Ltd.
Mahican history. (1997, 3. 7). Retrived Feb., 22. 2004, from <http://www.dickshovel.com>
 McDowell, C. (2000). *Fashion today*. London: Phaidon Press Ltd.
Our history. Retrived Feb., 20. 2004. From <http://www.mohican.com>
 Paterek, J. (1994). *Encyclopedia of American Indian costume*. N.Y., London: W.W. Norton & Company.
 Polhemus, T. (1996). *Style surfing*. London: Thames & Hudson.
 Polhemus, T. (1997).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Sizemore, D. (1997). *How to make cherokee clothing*. Cherokee Publication: NC, Through Indian Eyes(1995). Reader's Digest. N.Y.: The Reader's Digest Association Co.
 Taylor, C. F. (2002). *The American Indian*. Pennsylvania: Courage Books.
The last of the Mohican. Retrived Feb., 22. 2004, from <http://users.efni.com>
 Wolf, A. M. (1990). *Traditional dress*. TN: Book Publishing Company.
 Yuasa, S. (2002, Jun. 19). *Beckham's mohican hairstyle all the rage*. Retrived March, 2. 2004, from <http://africa.com>.